

西江大學圖書館

金 愛 羅

圖 머릿 말

우리의 圖書館을 紹介하기에 앞서 圖書館人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전통끝에 順産을 보게된 圖書館法施行令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眞正으로 今年은, 우리들 圖書館人들은 勿論 은 國民이 다같이 감개무량한 해로서 나같은 미숙한 사람에게는 이처럼 「메리케이트」하게 느껴지고 보면 하물며 우리 學界 發展을 爲해 心血을 기울여 오신 여러 恩師任들이나 先輩任들이야말로 얼마나 그 心懷가 깊으시겠는가는 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十年餘의 宿願이 이루어진 이때 第一線에서 혹은 第二線에서 全力을 기울여 手苦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衷心으로 感謝하며 또 讚辭를 드리는바입니다. 더욱이 先進國家의 親知들에게도 이제 우리나라도 圖書館法이 誕生되어 그 施行令까지 公布되었음을 嘖嘖하게 自負할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나는 圖書館人의 한사람으로써 작성 해야 될 큰 問題를 生覺합니다. 그것은 自身의 專門分野뿐만이 아니고 各分野에 걸쳐 더욱더 研究努力하여 보다 充實한 奉仕人으로써 손색없이 우리의 文化發展에 貢獻해야할테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몸가짐과 올바른 態度로서 비록 그 歷史는 짧으나 發展一略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圖書館에 對해서 보다 많은 讀者諸賢의 崇高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우리의 圖書館을 紹介하고자 합니다.

圖 沿 革

우리 西江大學 圖書館은 1960年 本大學校의 創設과 同時에 開館되었습니다. 本大學은 天主教에 수회 財團運營으로 本部는 美國 Wisconsin에 있습니다. 初代 館長으로는 哲學博士 Rev. Herbst, S.J. (許神父)이 史學科長과 함께 接임을 하셨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開館當時의 約 5,000~7,000 여권의 圖書는 거의 大部分이 洋書였으므로 館長 自身이 D.D.C.分類表에 依據하

여 助手 2名과 함께 分類編目을 하시었습니다. 다음해인 1961年 처음으로 司書 한사람을 채용하고 分類編目은 勿論 技術的인 行政事務등을 맡기고 보다 나은 圖書館 發展을 目標로 資料購入 및 諸般業務가 司書의 意見を 重要視한 가운데 보다 學術的으로 깊은 研究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은 施策下에 1962년에는 2名의 事務職員을 圖書館學講習에 보내어서 專門的인 知識을 얻게 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날로 增加하는 모든 資料整理를 爲하여 또 한사람의 司書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參考閱覽室과 一般閱覽室의 擴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격증하는 資料整理 등에 쫓겨서 새로운 方式의 一部改善과 모든 技術的인 奉仕등이 계획뿐으로 그 實現을 보지 못한채 1964年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해들어 2月10日자로 初代館長이신 許神父任이 初代 修練院長으로 就任하시고 뒤를 이어 英文學科長이신 文學博士 Rev. Bernbrock, S.J. (邊神父)께서 二代館長으로 就任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同時에 本大學 第1回 卒業生 1名을 圖書館 職員으로 채용하여 一般 雜務를 맡기고 司書 1名을 더 채용하는데 成功하였으며 同年 末頃에 碧眼의 司書 1人을 마치하였습니다. 이 外國人司書는 英國人인 Buckwell嬢으로 約 2年間을 우리 圖書館에 高문격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圖書館은 司書 4名(司書長과 外國人 包含) 平職員 1名이란 멤버로서 구성되어 多數의 學生 補助員을 채용하면서 本格的인 圖書館의 機能과 奉仕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獨立된 圖書館 建物이 없이 約 220.55坪에 달하는 本館建物 二層 全部를 使用하고 있음으로 閱覽座席이 約 270席에 不適當 事實上 小圖書館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建物新築 豫算에 科學館과 圖書館이 論議되어 最近에는 學長 神父任 以下 館長神父任 其外 運營委員들이 連달아 會議를 열고 우리들 司書가 提供한 “도서관시안의 요지” 등을 參考로 討議中이니 이것이 具體化되면 머지않은 將來에 圖書館建物の 新築이 實現되리라 믿는다.

■ 發展의 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은 圖書館界에서 比較的 大學圖書館이 順調롭게 發展되어 가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其中 本大學 圖書館發展이 현저히 빠르다고 할수 있는데는 그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몇가지 要素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當局者(財團 및 運營委員)들의 심심한 協調 即 圖書館이 그 大學의 心臟이요 教育의 센터로서 自主的인 學習方法을 認識시키는 場所라는 것을 내세우는 司書들의 方針을 여러가지 面으로 協調해 주었다는 點으로서 좀 具體的으로 說明을 요한다면 첫째로 總 豫算中 圖書館 豫算을 比較的 많이 配當하는 點:

每年 3月1日付로 새 豫算을 使用하게 되고 다음해 2月末日付로 豫算을 맺는다. 우리의 圖書館 豫算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資料購入費와 運營費로서 다시 資料購入費는 圖書 및 定期刊行物 購入費와 定期刊行物 製本費로 使用되며 運營費는 인건비 및 비품비로 使用된다. 其中 資料購入費는 各 學科別로 分配되어 있으며 學期初에 우선 各 學科長과 司書長이 긴급히 要求되는 資料들을 購入하며 第一學期中에 豫算總額의 60%를 購入하고 第二學期에 30%를 구입하며 나머지 10%는 非常用으로 세워둔다. 구입방법은 도서관용 即 參考資料, 一般教養資料들은 司書長이 선택하여 館長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고 科別로 配當된것은 教授들이 選擇하여 各 學科長의 승인을 얻어 구입청구서에記入하여 司書長에게 提出하면 外國注文인 경우에는 직접 出版社에 注文하면 돈은 美國 예수회本部에서 직접 支拂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서적의 구입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每年末에 司書長은 몇가지의 報告書를 館長, 學長에게 提出한다. 即 支出報告書와 新年度 豫算請求書, 各 學科別 統計報告書, 貸出統計 및 運營報告書등이다. 특히 定期刊行物の 豫約更新(Renew)은 대개 10月中에 미리 申請하여 新年度 豫算作成에 뚜렷하게 한다. 해마다 圖書館 豫算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같이 提出申請된 豫算은 다소의 삭감이 있을뿐 거의가 申請한대로 배당됩니다. 그리고 其他 項目의 雜費란 名稱으로 多少의 豫算이 每年 할당되고 있습니다.

每年 美國 혹은 구라파 各處의 예수회 자매대학들로부터 도서 및 정기간행물들이 기증됩니다. 지난해를 예로하면 年間 23회에 걸쳐 約 4,000餘卷의 기증이 外國으로부터 있었읍니다. 또한 國內에서도 야세아재단, 美·英·獨·佛 등 各國 大使館에서도 많은 기증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特別히 定期刊行物中 要求되는 Back Issues를 各處 자매대학에 申請하여 送料만을 支拂하

고 받을수 있는 좋은 機會를 갖어 많은 成果를 걸우었습니다. 언제나 기증받은 자료는 복본이 많은 경우 대개는 光州에 있는 우리의 자매대학인 大建神學大學에 보내며 또한 交換資料用으로도 備置해 둡니다.

둘째로 教授와 司書間의 協同을 爲한 論議에 關心을 가지며 이를 發展시키는데 더욱 協力하는 點:

參考資料利用法에 關한 特講 또는 Orientation 등 即 每年 簡單한 도서관 案内 또는 參考書籍의 目錄등을 준비하여 新學期初의 한주일을 Library Orientation Week로 定하여 도서관 안내, 취지, 기능, 봉사등을 說明하고 新入生으로 하여금 最大限으로 도서관에 흥미를 갖게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득을 인식시킨다. 이 Orientation이 끝나면 時期를 보아 教授들과 相議하여 協同으로 參考圖書의 利用方法을 指導하는 特講을 합니다. 質問紙와 答案紙를 作成하여 學生들에게 配付하고 一定한 期間內에 그 答案을 各自가 調査作成하여 司書長에게 提出하면 담당교수와 더불어 검토를 합니다. 답안을 作成하는 期間에는 參考司書가 친절히 도우며 모든 參考資料를 利用하여 스스로 답안을 찾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特別히 그 期間에는 Reader's Service 란 Desk를 마련하여 司書들로 하여금 모든 質疑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學生들과 司書間의 Relationship도 教授와 學生들間의 그것과 다름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司書들도 모든 계획을 세워 討議하고 專門職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식양성에 항상 끊임없는 研究가 要求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教育方針에 立脚한 指導法을 研究함에 重點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아무리 풍부한 資料들이 훌륭히 整理되어 있다하더라도 讀者들이 그 利用方法을 모른다면 結局은 皮相의인 結果를 免치 못할것임은 明白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點에서 Orientation과 圖書館學 特講이 實질히 要求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學生들에게만 有益하다기 보다 司書들 自身에게도 크게 有益한 길로서 即 효과적으로 남을 指導할려면 自身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點으로 이 모든 面에 有益함을 다시 생각하여 볼때 우리들이 實施해온것이 매우 效果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司書, 教授, 圖書館顧問등이 圖書館 發展을 爲한 기탄없는 意見交換을 함으로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司書를 專門職員으로 대우하여 주려고 努力하는 點:

勿論 보수액면에 特別한 대우를 하는것이 아니고 普通職員이 아닌 Professional한 職員으로서의 취급을 要求한데 對하여 깊은 考慮가 있다는 點입니다. 따라서 司書들도 全力을 다하여 圖書館 發展을 爲해 奉仕하고

있습니다. 以上 말한 세가지 要點등이 合理的인 圖書館 向上的 要素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 管理運營

이제 간단히 運營管理를 말해보면 本圖書館은 本大學의 學生 및 教授, 敎職員을 爲해서 最大의 奉仕를 한다는 原則下에서 開館時間은 事務室 및 貸出室은 平日에는 午前 8時부터 午後 5時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正午인 12時 까지로 합니다. 參考閱覽室은 平日은 午前 8時부터 午後 9時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午後 5時까지 奉仕하고 있으며 放學期間만은 모두 午前 9時부터 午後 5時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休館日은 우리나라 국경일 및 每日曜日 입니다. 利用方法은 參考閱覽室에서나 一般貸出時나 各 學生에게 發付된 圖書貸出證을 使用하게 됩니다. 貸出은 一般圖書의 貸出이 學生 一人當 3권까지 기간은 一週日間이며 指定圖書는 2時間, 1日制, 3日制가 있으며 이 모든 貸出圖書의 期間을 違反時는 1日當 또는 時間當 5원의 延체료를 받으며 亡失, 汚損등의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變상하게 됩니다. 圖書館의 各分野는 參考閱覽室, 貸出室, 整理室, 書庫, 司書長室, 館長室등으로 되어있으며 그 組織은 館長과 司書長이 行政一切와 資料選擇을 하며 司書長이 豫算計劃 報告一切, 資料購入, 涉外活動 및 各 分野의 指揮監督을 합니다. 整理室에서는 一切의 資料整理를 修行하며 貸出室에서는 一般貸出, 指定圖書貸出 및 敎職員貸出과 外 特別貸出등 一切의 貸出業務를 취급하며 參考閱覽室에서는 一般參考資料와 定期刊行物, 회귀서, 非圖書資料등을 備置하고 特別한 경우 以外에는 學生은 勿論 敎職員의 貸出도 禁止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관 고문은 각 분야에 걸쳐 항상 도우며 채택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좋은 意見을 提供합니다. 이 敍의 고문사서는 10餘年の 圖書館 勤務經驗을 갖고 있으며 定期刊行物 취급에 精通한 分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總藏書는 未整理圖書를 포함하여 約 68,000 餘卷이며 雜誌의 種類는 外國類가 320種, 國內類가 50種으로 合計 約 370餘種입니다. 또한 全校生 約 620名中 참고열람실 利用자의 統計를 보면 시험기간에는 115席의 座席이 거의 每時間 滿席이고 平時에는 그 半以上이 차있는 程度이며 一般 自由열람석 160席도 거의 같습니다. 貸出圖書數는 學生에게만 約 60~70여권이 1日에 貸出되는데 이는 東書가 60%로서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日에 1週間에 約 400 여권이 貸出되고 있는데 그 順位를 보면 文學, 사회과학, 순수과학, 宗教, 史學등의 順序입니다. 數千名의 學生을 가진 종합대학교도서관과 비교해 볼때 적은 학생수에 비해 대출권수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圖書館의 特別活動으로서는 校內放送, 또한 V.U.N. C.를 통한 放送, 서강타임스 및 전시대(Display Window)를 통한 新 入荷書籍紹介등등 多方面으로 圖書館의 P.R.活動을 하며 特別히 독서주간이나 도서관주간 등에는 전시, 특강, 좌담회등 다채로운 일들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 資料整理業務의 特異點

이제 資料整理上 特異한 部門만을 略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分類는 獨自의으로 알맞고 細密하게 東洋關係部門을 展開하고 200대의 宗教를 카톨릭敎의 立場에서 알맞게 展開한 Rev. Gilbert C. Peterson, S.J.의 分類表와 또한 530대의 物理學을 많은 새로운 主題들을 包含하고 있는 Marquette Univ. Memorial Lib.의 詳細한 展開表를 삽입한 D.D.C. 16版 Modification을 使用하고 있으나 보다 特異한 것은 800대의 文學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의 文學은 個人의 모든 文學作品을 한곳에 모으는 方法으로 著者固有番號(Author's Number)를 갖게 되는데 이는 한著者が 어떠한 形式(Form)의 文學作品(詩, 小說, 隨筆등등)을 썼는지 ① 그 著者が 가장 잘 알려진 Form(小說家, 詩人, 評論家등등)으로 ② 그 著者の 作品들이 가장 많이 쓰여진 時代(이는 作品의 版權年에 依해서)에 依據해서 個人의 固有番號가 定해지게 되는것입니다. 例컨대 William Somerset Maugham(1874—)은 823.9 M449의 番號아래 그의 모든 文學作品이 모이게 되는데 이는 그가 다른 形式의 文學作品(隨筆, 書簡등등)을 썼다하더라도 그가 小說家로서 가장 잘 알려졌으며 二十世紀에 가장 많은 作品이 發表되었으므로 上記한바 二十世紀 小說家로서의 固有番號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特別히 留意할 點은 다른 主題를 모두 除外한 오직 文學 作品들만에 局限되는 것으로 언제나 새로운 著者的 文學 作品들이 整理될때마다 事務用 文學著者番號카드(Authority file)가 權威있는 參考資料들에 依해서 만들어 지는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主題(同類)의 作品들이 分離된다는 問題點은 오직 書架配列上의 問題일 뿐으로 카드상으로는 各 作品의 形式대로의 分出카드가 만들어 짐으로 問題가 되지않으며 이 方法은 勿論 一長一短이 있으리라 믿지만 무엇보다도 한 作者의 모든 文學作品을 한곳에서 全部 찾아볼수 있다는 長點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編目은 全的으로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와 The Library of Con- (20面に 繼續)

되는 頻度의 統計에 의하여 만들어진 著者記號로 7page 에 巨하는 記號인므로 큰 圖書館에서는 理想的이나 小圖書館에서는 도리어 不便하다. 따라서 여기에 提案하는 圖書記號表(도표2)는 이제철式에 한거름 나가서 姓名의 子音과 母音을 數字로 記號化하되 子音은 다시 初聲과 終聲으로 나누어서 10區分으로 細分하여 記號를 配當하는 것이다. 初聲과 終聲을 各各 記號化하나 助記性 즉 記憶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排列로 記號를 配當하였다.

본표는 姓名의 첫째자는 그대로 한글로 적어서 著者記號의 첫째 記號로 삼고 둘째자부터 글씨쓰는 순서(初聲, 中聲, 終聲의 順)로 數字로 記號를 配當하였다.

예를들면 作者 이광수의 著者記號는 이 04766이다. (이제철式은 이 16657이다) 日本 作家 原田ヤス子=하라다야스코는 하 3020이다. 西洋人 Hemingway=헤밍웨이는 헤 49776이 된다. 또 이와 같이 著者기호가 길게 必要없는 小圖書館은 이광수는 이 047로 하라다야스코는 하 30으로 헤밍웨이는 헤 497로 簡略하게 줄여서 쓸수도 있다.

또 同一 著者의 圖書가 두개 이상일때는 가령 이광수著 사랑과 흠은 이 047ㅅ 이 047ㅎ 등으로 區別하

고 사랑의 再版은 이 047ㅅ2로 표시한다.

以上에 설명한 것을 分類記號와 著者記號를 아울러 請求記號로 만든다는 다음과 같다.

- [例] 이광수著 흠의 下卷은
- 813.....분류기호
 - 이 047ㅎ저자기호
 - 2.....卷次번호
 - 이광수著 흠의 下卷 複本은
 - 813.....분류기호
 - 이 047ㅎ저자기호
 - 2=2卷次번호와 複本기호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實情으로는 司書敎師가 授業도 담당하고 圖書館도 開館해야 하는 二律背反的 兩立狀態에서는 人力의 限度가 있으니 以上과 같은 事務的 簡素化는 圖書의 排架가 조금도 軌道에서 벗어 나지 아니하고 合理的으로 運營되는 方法으로 自負하고 小圖書館에 適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시말하면 이 分類表와 圖書記號表는 各各 한장에 收錄되어 圖表化 하였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揭示를 하여 쉽게 利用할수 있는 便利한 點이 있다는 것이다. 別表 1,2參照(筆者 安東農林高 司書敎師)

(16面에서 繼續)

gress의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에 依據해서 Self list, 著者, 書名, 分類目録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主題索引(Subject index)을 새로운 主題가 생길때 마다 우리말과 世界 共通語인 英語로서 만들어 한층 더 독자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問題點이 많은 日本語 圖書는 모두 カナ(假名)化하여 日本語 圖書固有의 카드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整理하는데 있어 상당한 時間과 努力을 要하게 되나 다른 圖書館들에서 많이 하고있는 우리말대로의 表記方法 보다는 훨씬 合理性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古書整理가 빈약하다는것이 우리 圖書館의 가장 큰 缺點으로 속히 보다 充實을 期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非冊字 資料로서는 상당수의 Micro film, 음반, 램프렛등이 정리되고 있으며 덜지않아서 主要 新聞의 索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結言으로 클머리에서 말씀드렸던 圖書館法 施行令公布란 기쁨과 더불어 “공든 탑이 무너지랴” 또는 “노력의 代價는 반드시 온다”라는 絶對的인 信念으로 우리 學界의 指導者들은 더욱 분투노력하시기를 期待하며

또한 나 個人으로서 바라고 싶은 點은 모든 點에 未熟한 愚人이 新設大學의 圖書館 發展을 좌우하는 重責을 맡고 있으므로 항상 여러 先輩任들의 끊임없는 指導와 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再言컨대 圖書館의 藏書數를 늘이는 것만이 圖書館發展이 아니고 모든 行政 組織面이나 資料整理面이나 奉仕面에서 보다 훌륭한 方法이 채택돼야 한다는 點에서 좀더 수시로 意見を 交換할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여 相互間에 기반없는 어려운 問題들을 터놓고 議論되어 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以外에도 여러가지 積極的인 方法으로 계속 꾸준히 研究하여 나감으로써 社會로부터의 좋은 反應을 期待할수도 있음으로 因해 보다 더 빠른 發展이 이룩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바라고 싶은 點은 可能한 일이라면 圖書館 資料交換 事務室(Book Exchange Center) 같은것을 設立하여 各 圖書館 相互間에 資料를 交換하며 보다 나아가서는 各 圖書館 相互間의 Inter-Library Loan System 이 이룩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圖書館 紹介를 마칩니다. 不足한 글 讀者들의 많은 諒察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西江大學 圖書館 司書長)